

“한국무대? 감 잡았어”

KIA 용병 복덩이 브렛 필



기회 때마다 안타·홈런 팀 승리 이끌어
홈런·타점·득점·장타율·출루율 팀내 1위
“한국생활 완벽 적응…최고 힘은 동료들”

‘필 소 곳’
브렛 필이 거침없는 타격을 앞세워 KIA의 특급 외국인 선수 계보를 이을 재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개막 후 한 달 동안 필이 작성한 성적은 타율 0.359, 5홈런, 14타점, 15득점, OPS(장타율+출루율) 1.061. 모두 팀 내 1위다.

4월 마지막날 SK와의 홈 경기에서는 1회부터 좌측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리는 등 3안타를 만들어내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시범경기에서 이렇다할 실력발휘를 하지 못하며 우려를 샀던 만큼 필의 지난 4월은 더욱 눈부시다. 어느새 팀의 중심타자로 자리 잡은 필은 매일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필은 “스프링 캠프에서 많은 훈련을 소화하기도 했다. 시즌에 맞춰 천천히 준비하느라 시범경기에서는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했다. 시범경기에 비해서 특별히 마

음가지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시즌을 겪으면서 상대 투수들 파악도 되고 느끼는 것도 많고 적응이 됐다”고 말했다.

그라운드에서의 적응은 물론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도 완료했다. 오는 7월 아기가 아빠가 되는 필은 광주에서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천변의 여유를 즐길 정도다.

필은 “경기장과 아파트가 가깝고 소풍하기도 편하고 좋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운치도 좋고 재미있다. 와이프가 테니스 선수 출신이라 같이 테니스도 치고 외출도 하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즐거운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다. 황당한 경험도 했다. 지난 30일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경기에 취객이 난입을 해 1루심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수비를 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있던 필에게는 황당한

사건이었다.

필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르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상황을 봤다”면서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좌충우돌 한국 무대에 자리 잡고 있는 필에게 동료는 가장 든든한 힘이다.

필은 “다들 잘 해준다. 특히 이범호·이대형 등 형들이 잘 챙겨준다. 나지완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한국 방망이도 추천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잘 해주고 있다”고 웃었다.

필을 웃게 한 KIA. 필은 팀을 웃게 하고 싶다.

필은 “타율·타점·홈런개수 등은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에 크게 연연하고 싶지 않다. 팀이 이기는 것이 우선이다. 팀 승리에 신경 쓰고, 팀이 잘 되면 저절로 개인의 것도 따라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브렛 필

덕아웃 특·특·특

▲“나는 안타 좀 치면 좋겠다.”

훈련 전 덕아웃에 홈런 얘기가 나왔다. “그나마 두 개 치기는 했지만 너무 오래됐다. 홈런 좀 치고 싶다”는 4번 타자 나지완. “나는 홈런 언제 나올까”라며 방망이를 만지작 만지작 하던 3할 타자 이대형. 통산 홈런이 7개 불과하지만 이대형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하나를 날렸었다. 두 선수가 홈런을 외치고 있을 때 조용히 차일목이 입을 열었다. “나는 안타 하나만 쳐도 좋겠다.” 차일목의 타율은 0.135에 머물러 있다.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1일 SK와의 경기에 앞서 특별 타격 훈련을 했던 김주형. 한대화 수석코치는 그

나지완 홈런 고민에 차일목 “나는 안타 좀 쳤으면”

런 김주형을 향해 “어이 하나”를 외쳤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치고 있다는 의미였다. “전날 경기에서도 딱 하나 치고 1·3루에선 치지를 않는다”고 쓴 소리를 한 한수석이 김주형에게 “내가 타석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지?”라고 물었다. 김주형은 큰 소리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인다”고 대답을 한 뒤 “밤새 공이 눈에 보여서 잠을 못 잤다”고 한숨을 쉬었다. 득점권에서 2루수 플라이로 돌아섰던 김주형이다. 한참 한 수석에게 소리를 들은 김주형은 “다시 타석이 돌아온다면?”이라는 질문에 “무조건 날

려버리겠다”며 자리를 떴다.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지난 30일 KIA와 SK와의 경기가 관중 난입 사태로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다. 취객이 1루 서프라이즈석 그물을 넘어 그라운드 난입, 오심 논란을 빚은 1루심을 폭행한 사상 소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SK 백재호 코치를 중심으로 심판진, 보안요원이 달려들어서 취객을 제압해야 했다. 있을 수 없어서는 안 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KIA 선동열 감독은 “예전에도 관중이 그라운드에 난입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는

가. 특히 이런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인계됐던 문제의 관중은 박근영 심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읍주 소란에 따른 범칙금 5만 원을 내는 것으로 귀가 조치 됐다. 하지만 앞으로 챔피언스필드는 영원히 밟지 못할 전망이다. 티켓 예매가 금지되고 경기장 출입시 제제를 받는 등 구단으로부터 영구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 또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챔피언스필드에 알코올 함유 6% 이상 주류 및 유리병에 담긴 주류에 대한 반입이 금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북, 1년만의 ‘핑퐁’

1일 도쿄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 남자 예선 D조 최종 5차전에서 남·북한이 맞붙었다. 두 번째 경기에서 나지완(오른쪽)과 북한 김혁봉이 치열한 랠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승환은 1이닝 히어로” 퍼펙트 행진에 日 언론 극찬

일본 언론이 8경기 연속 무실점, 7경기 연속 무피안타 행진을 이어가는 한신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오승환(32)을 향해 ‘1이닝 히어로’라는 찬사를 보냈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1일 “오승환은 1이닝 히어로, 6일 만의 등판도 문제없었다”고 전했다.

오승환은 지난 30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

미야시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홈 경기에서 한신이 8-4로 앞선 9회초 등판해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 1삼진으로 막았다.

세이브 상황이 아니었지만 오승환은 최고 시속 152km의 강력한 직구를 뽐내며 3타자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오승환은 경기 뒤 일본 취재진과 인터뷰

에서 “타자가 누구든 나 자신의 투구를 할 뿐”이라며 “6일 만의 등판이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승환은 불규칙한 등판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8~20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3연전에 모두 등판해 3개의 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은 나흘 뒤 주니치 드래곤즈

와 경기에서 시즌 6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이후 다시 6일을 쉬고 히로시마를 상대해 무피안타 무실점 투구를 했다.

일본 언론은 오승환이 최근 6경기에서 모두 탈삼진을 기록한 점도 일본 무대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류, 어린이날 ‘승’ 선물 줄까

5일 마이애미전 등판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원수 투수 류현진(27)이 5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류현진(27)이 5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파크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

MLB닷컴은 1일 다저스 향후 일정을 소개하며 류현진을 5일 경기 선발로 예고했다.

MLB닷컴은 “댄 하렌이 2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더블헤더 첫 경기에 나서고, 트리플A 앨버커키 아이소톱스에서 활약하는 레드 패터슨이 두 번째 경기에 나설 것”이라며 “조시 벡에이 3일, 폴 마홈이 4일, 류현진이 5일 마이애미를 상대할 예

정이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 28일 홈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5이닝 9피안타 6실점하며 시즌 2패(3승)째를 당했다. 최근 두 차례 경기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할 전망이다.

MLB닷컴의 예상대로 류현진이 5일에 등판한다면, 마이애미가 공들여 키운 오른손 영건 호세 페르난데스(22)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해 박리그에 데뷔해 12승 6패 평균자책점 2.19를 기록한 페르난데스는 올해 4승 1패 평균자책점 1.59의 위력적인 투구를 펼치며 마이애미 에이스로 도약했다.

/연합뉴스

KIA-서울 화이트·뉴욕 미래 치과 지정병원 협약



KIA 타이거즈가 서울화이트치과(광주시 서구 농성동·사진)와 뉴욕미래치과(광주시 광산구 쌍암동)를 구단 지정병원으로 위촉했다. KIA는 최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구단 사무실에서 허영택 단장과 서울화이트치과 이주형 원장, 뉴욕미래치과 김운규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병원 위촉식을 갖고 선수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